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영향요인에 대한 융합적연구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Mi-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인성, 간호전문직관 및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분석하고,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D, S시 소재 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74명으로, 연구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중간정도이었으며, 인성,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성 ($\beta=.350, p<.001$), 간호전문직관($\beta=.172, p<.001$), 도덕적 민감성($\beta=.134, p<.001$)임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25%이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임상현장에서 인성, 간호전문직관 및 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인성,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간호사,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d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moral sensitivity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The study evaluated on 174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in D and S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the level of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was moderate scor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and character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moral sensitivity.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were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 value, moral sensitivity, which explained 25% of variance i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Based on these findings, education programs that develop character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moral sensitivity are necessary for nurses to promote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 Key Words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 Value, Moral Sensitivity, Nurs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는 간호현장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높게 되고 간호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같이 스스로 윤리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호사 스스로도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1].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직 분위기, 간호인력, 대상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달리하여 죄책감, 을 겪고 법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딜레마에 빠져 업무만족도가 저하되어 이직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직업의 전문성과 능력을 의미하는 전문직 역할로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간호전문직 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2], 교육과정에서부터 중요성이 강조되어 대학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윤리적 상황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상황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차이를 보이고 [3,4],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적은 간호사에 비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하면[5], 대학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간호사들이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하거나 대상자에게 윤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와 대상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6], 특히 사람의 성격, 인격, 품성을 의미하는 인성은 긍정적이고 건전하며 도덕적, 윤리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7,8], 간호사의 좋은 인성은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시 상황에 맞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간호현장에서도 간호학생들이 인성을 갖추고 임상현장으로 배출되도록

요구하고 있어[9], 학교에서부터 임상에서의 인성함양을 통해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간호기술 뿐만 아니라 전문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신념, 관념 및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과 그 활동에 대한 직업의식으로, 간호사들의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행동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여 간호전문직에 있어 기본요소라 할 수 있어[10,11]. 대학에서부터 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2]. 간호사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직관을 갖고 있을수록 의료현장에서 다른 전문인들과 상호작용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간호업무수행 성과가 높고[13,14].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가 윤리적 상황에서 대상자가 의사결정 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 전문적인 행동에 기준이 되는 간호전문직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신규간호사들이 이직을 생각함에 있어 무력감과 직업적 목표가 결여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여[15]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시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임상현장에서 전문직관을 확고히 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도덕적 민감도는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들의 도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갈등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으로[16], 개인의 가치관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간호사는 윤리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윤리적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17],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지식과 확고한 가치관과, 높은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한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시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신감 있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업무만족도에

대한 연구[14,18]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가 있으며, 간호인성에 대한 연구는 MMPI 성격에 대한 연구만[20] 이루어져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바람직한 윤리적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수준을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인성,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사의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사의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융복합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와 S시의 3개 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자료수집 전 J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JIRB-201609130-01-161024)을 받았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로 설정하였을 때 표본 수는 152명이었으며[21],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간호사 18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간호부를 방문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 참여 수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180명이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하고 17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은 간호사가 윤리적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Sulmasy, Geller, Levine & Faden[22]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PECS)을 Laabs[5]이 수정, 보완하고 Kim[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aabs[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Kim[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2 인성

인성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인성은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으로 Park[8]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3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거의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7$ 이었다.

2.3.3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요구와 필요를 읽어내고 도덕적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내는 능력이다[17]. 본 연구에서는 Lutzen & Nordin[17]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도구를 Han, Kim, Kim & Ahn[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7개 문항으로 환자 중심 간호, 전문적 책임, 갈등, 도덕적 의미, 선행 영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절대로 동의 안함’ 1점에서 ‘완전히 동의함’ 7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

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Han, Kim, Kim & Ahn[23]은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인상의 총합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Yeun, Kwon & Ahn[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역할, 간호의 독자성 영역의 5개 하위영역 29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4 자료분석

조사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자가 90.8%, 남자 9.2%이었으며, 연령은 25세 이하가 24.7%, 26-30세가 32.8%, 31-40세가 29.3%, 41세 이상이 13.2%이었다. 종교는 있는 사람이 45.8%, 없는 사람이 55.2%이었고, 학력은 전문학사 43.7%, 학사 51.1%, 석사이상 5.2%이었다.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48.3%, 특수부서 38.5%, 기타부서 13.2%이었으며,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42.5%, 3-5년 16.7%, 6-10

년 16.1%, 11-20년 19.5%, 21년 이상 5.2%이었다. 직무만족도는 불만족이 16.1%, 보통이 43.1%, 만족이 40.8%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4)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16	9.2
	Female	158	90.8
Age (year)	≤25	43	24.7
	26-30	57	32.8
	31-40	51	29.3
	41≤	23	13.2
Education	Associate degree	76	43.7
	Bachelor's degree	89	51.1
	Master's degree ≤	9	5.2
Department of work	General ward	84	48.3
	Special ward	67	38.5
	Etc	23	13.2
Nurse career (year)	≤2	74	42.5
	3-5	29	16.7
	6-10	28	16.1
	11-20	34	19.5
	21≤	9	5.2
religion	Yes	78	45.8
	No	96	55.2
Satisfaction with job	Dissatisfaction	28	16.1
	Moderate	75	43.1
	Satisfaction	71	40.8

3.2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

대상자 인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이었다.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74점으로 영역별로는 선행영역이 4.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중심 간호영역(4.82점), 갈등영역(4.75점), 전문적 책임영역(4.73점), 도덕적 의미영역(4.52점) 순으로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간호의 전문성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실무 역할(3.65점), 전문직 자아개념(3.60점), 사회적 인식(3.28점), 간호의 독자성(3.23점) 순으로 높았다.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haracter, Mor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N=174)

Variable	Mean±SD
Character	3.88±0.42
Moral Sensitivity	4.74±0.60
Patient centered nursing	4.82±0.87
Professional responsibility	4.73±0.73
Conflict	4.75±0.77
Moral meaning	4.51±0.60
Beneficence	4.99±0.78
Nursing Professional Value	3.49±0.5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60±0.62
Social awareness	3.28±0.63
Professionalism of nursing	3.67±0.6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3.65±0.65
Originality of nursing	3.23±0.67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3.46±0.5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정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인성은 연령이 41세 이상인 간호사가 40세 이하인 간호사에 비해 높았으며(F=7.833, p<0.001), 직무만족도가 불만족인 간호사에 비해 만족인 간호사가 높았다(F=5.500, p=0.005).

도덕적 민감성은 30세 이하 간호사에 비해 41세 이상 간호사가 높았으며(F=4.2130, p=0.007), 직무만족도가 만족인 간호사가 불만족인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F=5.512, p=0.005). 간호전문직관은 25세 이하 간호사에 비해 41세 이상 간호사가 높았으며(F=4.047 p=0.008),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에 비해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높았고(F=4.765, p<0.010), 2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20년 이하 간호사에 비해 높았으며(F=3.015, p<0.020), 직무만족도가 만족인 간호사가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F=10.411, p<0.001).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25세 이하 간호사에 비해 31세 이상 간호사가 높았으며(F=5.895, p<0.001), 근무경력 21년 이상 간호사가 10년 이하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F=3.553, p=0.0081). 종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았으며(F=2.589, p=0.010), 직무만족도가 불만족인 간호사에 비해 만족한 간호사가 높았다(F=7.131, p<0.001).

<Table 3> Character, Mor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4)

Variable	Categories	PEC		Character		Mor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60±0.60	0.328 (0.261)	3.96±0.45	0.029 (0.229)	4.99±0.54	0.687 (0.082)	3.53±0.40	1.510 (0.717)
	Female	3.45±0.52		3.81±0.42		4.71±0.60		3.49±0.52	
Age (year)	≤25 ^a	3.25±0.53	5.895 (<.001)***	3.64±0.38	7.833 (<.001)***	4.57±0.67	4.213 (.007)**	3.33±0.47	4.047 (.008)**
	26-30 ^b	3.40±0.46		3.82±0.38		4.69±0.56		3.50±0.39	
	31-40 ^c	3.59±0.48		3.85±0.42		4.78±0.49		3.49±0.55	
	41≤ ^d	3.73±0.64		4.14±0.44		5.09±0.63		3.77±0.65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3.46±0.49	.904 (0.407)	3.80±0.41	.568 (0.568)	4.73±0.59	.106 (0.900)	3.48±0.44	.108 (.898)
	Bachelor's degree ^b	3.44±0.53		3.84±0.41		4.76±0.54		3.49±0.49	
	Master's degree ≤ ^c	3.69±0.83		3.94±0.59		4.67±1.10		3.57±1.08	
Department of work	General ward ^a	3.39±0.57	1.753 (0.176)	3.79±0.42	2.021 (0.136)	4.68±0.59	1.743 (0.178)	3.44±0.41	4.765 (.010)**
	Special ward ^b	3.50±0.47		3.82±0.40		4.75±0.61		3.45±0.60	
	Etc ^c	3.60±0.53		3.99±0.47		4.94±0.58		3.79±0.49	
Nurse career (year)	≤2 ^a	3.36±0.53	3.553 (0.008)**	3.80±0.44	1.897 (0.113)	4.73±0.62	.926 (0.450)	3.45±0.48	3.015 (.020)*
	3-5 ^b	3.42±0.50		3.77±0.40		4.64±0.55		3.44±0.38	
	6-10 ^c	3.56±0.59		3.85 ±0.37		4.74±0.63		3.48±0.54	
	11-20 ^d	3.49±0.42		3.82±0.42		4.75±0.53		3.48±0.53	
	21≤ ^e	4.01±0.56		4.19±0.45		5.07±0.65		4.05±0.71	

3.4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및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은 인성($r=.461, p<0.001$)과 도덕적 민감성($r=.366, p<0.001$), 간호전문직관($r=.36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인성은 도덕적 민감성($r=.474, p<0.001$), 간호전문직관($r=.418, p<0.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 ($r=.499, p<0.001$)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of Character, Mor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N=174)

Variable	Character	Mor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 Value	PEC
Character	1			
Moral Sensitivity	.474***	1		
Nursing Professional Value	.418***	.449***	1	
PEC	.461***	.366***	.369***	1

PEC =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 $p<.05$, ** $p<.01$, *** $p<.001$

3.5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영향요인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1.986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도 공차한계가 .699-.722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344-1.431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 ($F=20.194, p<.000$),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5.0%이었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N=17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과 인성,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인성, 도덕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3.46점으로 Kim[14]의 3.40점, Jung[18]의 3.31점과 비슷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여 간호사가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25세 이하 간호사가 31세 이상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경력이 20년 이상 간호사가 10년 이하 간호사보다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14,18]와도 같은 결과로서 연령과 경력이 많아지면 간호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향상되어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에 비해 높았는데, 종교는 개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간존엄성과 생명존중사상의 간호철학을 바탕으로 전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17], Kim[14]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Lim[19]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간호대학생들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들의 간호인성 수준은 평균 3.88점으로 중간이상의 인성수준을 보였는데 MMPI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 인성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20]에서도 간호사들이 중간 이상의 인성 수준을 보였다. 40세 이상 간호사가 40세 미만 간호사에 비해 인성 수준이 높았는데,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추가하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성이 함양되는 것을 고려하면[25],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성숙하고 안정감을 가져 인성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간호사가 직무 불만족인 간호사에 비해 인성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Hong과 Park[20]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의 인성 수준이 직무만족도가 낮은 간호사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로서, 연령과 경력이 높

아질수록 업무 환경에 익숙해지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높아져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들의 인성수준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4.74점으로, Noh, Kim과 Kim[26]의 4.70점, Hong, Park과 Moon[27]의 4.7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부영역에서는 선행영역과 환자중심영역의 도덕적 민감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고 도덕적 의미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이 낮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26,27]. 선행영역과 환자중심간호 영역의 도덕적 민감도가 높은 것은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도덕적 상황을 경험하고 확고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갖고 환자의 권리존중, 환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23], 도덕적 의미에 대한 도덕적 민감도가 낮아 도덕적 민감도는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길러지며 간호윤리교육을 통해 도덕적 민감도와 도덕적 의미가 증가하고[28], 윤리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도덕적 민감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27], 임상현장에서도 간호윤리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도덕적 의미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연령이 높은 간호사와 직무만족도가 만족인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26,27]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간호사들이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도덕적 성숙과 지혜가 축적되어 업무에 대한 숙련도 증가되어 도덕적 민감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으로 중간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부영역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 영역에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31]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가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성에 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간호업무 특성 상 독립적인 업무보다 많은 부분 업무를 다른 직종과 공유해야 하는 간호의 특성[32]을 반영한 것으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영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령, 근무경력, 직무만족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와 경력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업무에 업무 숙련도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기회가

많아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전문직 관도 높아지는 것을[33]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들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이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은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수준이 향상되고 간호사들의 전문직 수준과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되므로 [9,25] 임상현장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직업의 안정성보다 대상자에게 전문간호제공을 위해 간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신규간호사보다 연령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교육 참여 동기도 높아[34],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도를 반영한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간호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전문직관으로서 대상자의 윤리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와 S시에 소재하는 3개 종합병원간호사 174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윤리적인사결정 자신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연령이 많은 간호사가 연령이 적은 간호사에 비해, 근무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근무 경력이 적은 간호사에 비해,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종교가 없는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 인성과 도덕적 민감도는 각각 5점 만점에 3.88점, 4.74점으로 연령이 많은 간호사가 연령이 적은 간호사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만족인 간호사가 불만족인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인성($r=.461, p<0.001$), 간호전문직관($r=.369, p<0.001$), 도덕적 민감성($r=.366, p<0.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

었으며, 간호사의 윤리적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직무 중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6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 [1] M. H. Kim, J. R. Chun, S. A. Hong, "3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23-129, 2016.
- [2] K. J. Lee, S. 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Research*, Vol. 17, No. 1, pp. 1-15, 2011.
- [3] Y. M. Lee, K. A. Jung, M. A. Son,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uthanasia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213-224, 2015.
- [4] Y. J. Oh, E. M. Lee, "Convergence Awareness and Ethical Attitudes about DN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63-72, 2017.
- [5] C. A. 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33, No. 1, pp. 10-14, 2012.
- [6] J. Franks, "The Caring Character", *Nursing Standard*, Vol. 23, No. 26, pp. 61, 2009.
- [7] K. H. Chon, E. H. Kim, "An 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and Evaluation Components for Selecting Creative Convergent Tal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pp. 197-204, 2017.
- [8] J.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Character Scale for Care in Clinical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37-151, 2013.
- [9] S. S. Yang, H. I. Kim, K. P. Joo,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9, No. 2, pp. 145-170, 2006.
- [10] Y. M. Park, H. J. Ju, "Personality Types of Nurses and the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333-345, 2016.
- [11] E. J. Cho,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2] M. Park, D. Kjervik, J. Crandell, M. H. Oemann, "The Relationship of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Reason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 19, No. 4, pp. 568-580, 2012.
- [13] E. S. Lee, M. S. 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11-320, 2017.
- [14] J. H. Kim,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Ch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15] Y. M. Kim, S. N.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Experience of Turnover in New Graduate Nurses within One Yea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97-106, 2016.
- [16] K. Lu'tze'n, V. Dahlqvist, S. Eriksson, A. Norberg, "Developing The Concept of Moral Sensitivity in Health Care Practice", *Nursing Ethics*, Vol. 13, No. 2, pp. 187-196, 2006.

- [17] K. Lu'tze'n, C. Nordin,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ation of Nurses' Moral Sensitivity in Psychiatric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Psychiatric Research*, Vol. 4, pp. 241 - 248, 1994.
- [18] M. Jung, "The Ethical Leadership of Nurse Managers and Their Effects on the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Vol. 19, No. 1, pp. 74-86, 2016.
- [19] M. H. Lim,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610-618, 2016.
- [20] S. H. Hong, K. S. Park, "A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8, No. 3, pp. 489-500, 2002.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 A Flexible' s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 [22] D. P. Sulmasy, G. Geller, D. M. Levine, R.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eve of Internal Medicine*, Vol. 150, No. 12, pp. 2509-2513, 1990.
- [23] S. S. Han, J. H. Kim, Y. S. Kim, S. H. Ahn,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Vol. 17, No. 9, pp. 99-105, 2010.
- [24] E. J. Yeun, Y. M. Kwon, O. K.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25] J. H. Park,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2013.
- [26] D. B. Noh, S. A. Kim, S. H. Kim, "Moral Distress,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No. 4, pp. 307-319, 2013.
- [27] S. H. Hong, Y. H. Park, J. S. Moon, "Relationship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Elderly Nursing Practice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7, No. 1, pp. 75-87, 2016.
- [28] M. A. Kim, "Two Teaching Method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Moral Intelligence,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Theatre of Situations and Pro-Con Debate", *Journal of Korean Medical Ethics*, Vol. 16, No. 3, pp. 376-390, 2013.
- [29] K. N. Kang,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8, No. 2, pp. 155-165, 2012.
- [30] M. R. Jung, E. Jeong, "Influence of Vital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Emotional Labor among Pediatric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 pp. 699-715, 2017.
- [31] E. J. Cho,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Nurse Parent Partnership in Pediatric N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2] E. K. Lee, E. J. Ji,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23, No. 2, pp. 126-135, 2016.
- [33] H. K. Yoon, H. K. Yoon, J. H. Choi, E. Y. Lee, H. Y. Lee, M. J. Park,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5, pp. 658-667, 2013.
- [34] H. H. Park, K. O. Lee, S. O. Kim,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Clinical Nurses in Job Tr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19-329, 2016.

저자소개

임 미 혜(Mi-Hye Lim)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5년 2월 ~ 2002년 6월 :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원
- 2010년 3월 ~ 2015년 1월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교육, 건강증진